

“15년... 불국정토 기반 다져온 시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6월 10일 기념법회

불교계 대표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복지재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복지재단은 이를 기념해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념법회를 열었다. 1995년 설립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지역사회·자원봉사·국제구호 등과 관련한 130여 복지재단 산하시설을 운영해 복지포화활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아왔다.

대표이사 자승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은 불교의 자비를 경전의 글자가 아닌,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보여 주신 분들과 대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귀중한 자리”라며 “재단의 15년간 발자취는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로서 불국정토의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15주년 기념법회에서 '만민의 행복'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이상벽씨가 동참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심양면 헌신해 온 불교 사회복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기관 표창 및 재단 유공자 표창 전달식이 있었다.

우수 산하시설은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 서울 광진노인종합복

지관(관장 화평),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봉), 남양주시 노인복지관(관장 권정), 대전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범등) 등이 선정됐다.

복지재단은 15주년을 맞아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기금 모금사업 ‘만행

(萬行)’을 전개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만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이상벽씨는 동참서원문 낭독과 동참서원서 작성을 통해 본격적인 자비나눔 실천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만행’은 월 1만원의 후원금 등장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운동으로 모인 후 원금은 국내·외 소외 가정과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전제회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어르신 글은 참다운 삶 느끼게 한다

6월 10일 제1회 전국 어르신 백일장대회

요즘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이전과 달리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맞춤형 복지를 원할 만큼 자신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들이다. 이런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연꽃마을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 백일장 대회를 열었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설립 20주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개관 10주년을 맞아 6월 10일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회 전국어르신백일장대회가 개최됐다.

대회에 앞서 참가 신청을 받을 때만 해도 펜을 잡아본지가 오래된 어르신들은 많이 망설이셨다. 능인 스님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해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참가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만60세 이상의 1000여 어르신들이 제1회 전국어르신 백일장 대회에 참가해 숨은 기량을 뽐냈다. 뿐만 아니라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2700여 어르신이 일산 호수공원과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이 나무 그늘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일대를 가득 메웠다. 백일장 대회는 운문과 산문 두 분야로 주제는 유년·고향·가족 세 남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해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참가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만60세 이상의 1000여 어르신들이 제1회 전국어르신 백일장 대회에 참가해 숨은 기량을 뽐냈다. 뿐만 아니라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2700여 어르신이 일산 호수공원과

생 아니겠어요. 시 속에서나마 친구를 불러내 막걸리 한잔 하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박복순(75) 할머니는 “강물도 세월도 흐르는 건 막을 수 없다.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살자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며 자신의 글을 소개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소녀로 돌아간 민영애(75) 할머니는 “원고지 사용법을 몰라 처음에는 막막했다. 내 느낌을 담은 글이 완성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각현 스님은 “이렇게 어르신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삶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백일장 대회는 신경림 시인을 비롯한 7명의 문인이 심사를 맡았다. 심사위원장 신경림 시인은 “서툴지만 진정성이 묻어나 어르신들의 글이 인상적이다.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글을 읽으면서 참다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호국영령·구민 위한 제22회 기원대법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이하 은평구청 불심회)가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제22회 호국영령과 은평 구민을 위한 호국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성운 스님은 “우리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호국불교로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선조들의 숭고한 넋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불자들은 불심으로 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여한 500여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땅 위에 실현해 선진 은평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발원했다. 박선주 기자

힘찬병원, 나눔의 집 후원금 전달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6월 9일 수요일 목동 힘찬병원에서 일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무르는 나눔의 집(소장 안신권)에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힘찬병원에서 5월 20일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1000만원과 이수찬 원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 및 인근주민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수찬 원장은 2000년대 초반 나눔의 집과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방송사와 시민단체의 소개로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의 무릎관절을 무료로 수술해 드렸고 그 후로 나눔의 집에서 무료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목동 힘찬병원이 6월 9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 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이옥선 할머니, 박옥선 할머니, 김순옥 할머니, 힘찬병원 이수찬 원장의 모습이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을 쓰겠다”고 말했다.

힘찬병원 이수찬 원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잇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잇는 것과 같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열매가 돼 보다 많은 후원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할머니 한 분이 살아계시더라도 그분의 아픈 곳을 치료해 드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달식에는 힘찬병원과 나눔의 집과의 인연이 시작된 이옥선 할머니와 김순옥 할머니, 배춘희 할머니, 박옥선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그리고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 참석했다. 박선주 기자

“장기기증, 다른 생명 살릴 수 있는 일”

영화배우 문소리,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

영화배우 문소리씨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0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진행됐다.

문소리씨는 “장기기증이 생명을 앗아간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장기기증은 내 생명이 꺼져갈 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다. 가족들과는 모두 장기기증 등록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친구 몇 명에게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불자로서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신행 생활도 열심히 문소리씨는 생명나눔 홍보대사 계약서와 장기기증신청서에 사인하고 “홍보대사로서 일반인들의 장기기증을 독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생명나눔의 홍보대사 이자 불자 탤런트인 김혜옥씨와



일면 스님이 영화배우 문소리씨에게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문소리씨는 두 달 전 홍보대사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문씨는 곧바로 생명나눔 홈페이지에서 장기기증신청서를 작성했을 만큼 생명나눔의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칸 영화제 등 각종 행사가 겹치면서 홍보대사 위촉식이 늦어진 것. 일면 스님은 “한 사람의 나눔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홍보대사들이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튼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TH)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 ▶ 일시 : 매주 월요일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1회에 한하여 무료수강 가능)
- ▶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 치유 : 내안에 누가 있는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 할 수 없어요. 등 환청,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 행동, 괴벽, 정서불안, 악몽, 가위눌림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형사 악사요...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